



#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박찬일/편집인 : 서창옥/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http://www.kamje.or.kr)



##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지난 총회 이후 대한전주관절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임상검사와 정도관리,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Journal of Lung Cancer* 가 신규로 가입하여 2007년 5월 현재 165종(의학회, 의협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24, 의과대학 학술지 12, 기타학회 학술지 29)이며, 개인회원은 37명입니다.

또한 특별회원은 총회 이후 JOY DESIGN과 5월 Google

Inc.가 신규로 가입하여 광문출판사,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Naver, Proquest 한국지사 등 총 1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사무국(Tel: 798-3807, Fax: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회장 인사



항상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의편협으로 약칭)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지난 1년 동안에도 의편협은 학술지평가와 **KoreaMed**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비롯한 핵심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단체회원 가입심사와 학술지평가를 통해 단체회원이 165개 단체로 증가하였고 **KoreaMed** 등재 학술지도 126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KoreaMed**에는 매년 약 14,000건의 영문초록을 입력하여 현재 129,000건을 넘어섰고 1997년 이전에 창간한 학술지로서 **KoreaMed Retro**사업에 참여하는 학술지도 8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KoreaMed**를 통해 full text로 LinkOut이 가능한 학술지가 41종에 불과하여 등재 학술지의 1/3도 채 안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보다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 이외에도 의편협이 지난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학술지 출판윤리, 우리나라 의학학술정보의 세계화, 편집인협의회 10년사 편찬 등이 그것입니다. 2005년 8월경 어느 회원학회로부터 이중게재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중복출판과

저자되기에 관한 문제가 여러 차례 노출되어왔으며, 특히 연구 결과의 날짜변조 표절모방과 같은 연구부정(연구진실성)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의편협은 이러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6년 6월 상설 위원회의 하나로서 출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포함하여 논문작성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한 Uniform Requirements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개정본을 번역하여 회원단체에 안내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편협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정보의 세계화(world-wide dissemination of KoreaMed data)를 위한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첫째, 세계적 검색 서비스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NHN(Naver)과 Google Korea로 하여금 **KoreaMed**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메타검색을 협용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서태평양지역 Index Medicus(WPRIM)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셋째, **KoreaMed** 등재학술지에 실린 개개의 논문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데 관심을 갖고 록 회원단체에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소개하고 CrossRef(DOI registration agency) 가입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발전과 함께한 의편협 10년사」 편찬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편찬사업은 의편협의 향후 활동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 의학학술지가 발전해 온 자취와 의편협이 활동해온 지난 10년을 기감 없

이 되돌아보려는 것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이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몇몇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를 재평가한 결과와 **KoMCI**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점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술지를 분야별로 나누면 각 분야별 학술지가 지극히 제한된 수에 불과하여 서열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발전된 학술지로 살아남도록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국립도서관의 **PubMed Central** 자료를 국내 사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PubMed Central**의 국제사업(**PMCI**)에 참여하여 **PMCI Korea**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편협의 재정현황으로 보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KOBIC**)와 같은 준 국가기관과 공조하면 가능한 사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의편협과 **KOBIC**의 긍정적인 관계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KoreaMed/KoMCI** 관련 의학학술정보의 유지 관리에 국가지원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편협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평가를 통해 학술지 발전을 유도하고 **KoreaMed**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등재학술지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생명과학자가 보고 인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우리의 목표에 차근차근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밖에도 회원단체 학술지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협의회의 사업은 임직원의 노력봉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원단체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끝]



##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샵 개최

2007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가 2007년 3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12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2006년도 감사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정기총회가 끝난 후 아래와 같이 정보관리위원회가 마련한 Workshop을 개최하여 회원 학술지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샵 일정

2:00~3:00 총 회  
3:00~3:10 휴식

####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 특별보고

3:10~3:30 WHO/WPRO의 Regional Index Medicus(WPRIM) 사업  
서 정우 (서울의대 병리학,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장)  
3:30~3:40 질의응답



##### 제 1 부 PubMed Central

3:40~4:00 Korea PubMed Central Project  
- 허 선(한림의대 기생충학, 정보관리위원장)  
4:00~4:20 휴식



##### 제 2 부 DOI와 CrossRef

4:20~4:50 DOI와 CrossRef  
- 이 춘실(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정보관리위원)  
4:50~5:00 질의응답  
5:00~5:20 종합토의  
5:20 폐 회



##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6 발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학술지 평가를 통해 KoreaMed에 등재된 119종(2006년 기준)의 국내 의학학술지 상호간의 인용형태를 분석한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6]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06년도 국내 의학학술지의 게재논문 수, 한국 문헌 인용 비율, 자체학술지 인용비율, Impact Factor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oMCI 2000에서부터 일곱 번째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내용은 <http://www.komc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 의학학술지 국제화 방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국내 의학학술지 국제화방안으로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부여와 PubMed Central(<http://www.pubmedcentral.nih.gov>, 이하 PMC)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OI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하는 식별번호로 온라인상의 전자콘텐츠,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등에 부여하는 특정한 코드 값으로 저작물의 정보를 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학술이나 전문적인 출판물을 위한 DOI 부여 agency로는 CrossRef(<http://www.crossref.org>)가 있습니다.

CrossRef는 주로 출판사와 학회가 회원으로 DOI 부여작업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학술정보의 검색을 빠르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Cross-publisher Citation-linking System을 제공합니다. 학술지의 경우 CrossRef 가입을 통해 학술지 논문마다 DOI를 부여 받아 전세계 어느 문헌에서 인용하더라도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참고문헌 DB의 국제표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PMC는 미국 NLM에서 제공하는 원문제공·검색 서비스로 2001년 시작하여 2007년 5월 현재 325개 학술지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PMC에 등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full-text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PubMed 보다 먼저 이곳을 검색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CrossRef 참여 조건은 (1) 학술지 논문의 full-text를 무료 또는 유료로 온라인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2) 논문의 메타데이터와 참고문헌을 XML로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3)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참고문헌클릭을 통해 외부 학술지 원문으로 연결하는 Response Page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적어도 참고문헌이 영문으로 작성된 학회지만 가능합니다. (4) 논문

을 CrossRef에 등재시키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2005년 이후 논문편당 \$1, 2004년 이전 논문은 편당17cents).

PMC 참여 조건은 (1) 현재로서는 본문의 언어가 영어인 학술지만 가능합니다. (2) PubMed에 등재된 학술지여야 합니다. (3) PubMed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가 신청하려면 그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기존에 1종 이상 PubMed등재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과 함께 Agricola, Biosis, CINAHL,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Science Citation Index 등에 등재된 학술지이거나 또는 편집 위원 중 최소 3명이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내외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고 있는 책임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PMC XML 양식에 맞춰 학술지 최근 3개호 또는 논문 50개의 XML을 만들어 보내 그 XML 작성능력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의편협에서는 KoreaMed LinkOut을 하고 있는 학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CrossRef와 PMC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편협이 CrossRef에 Sponsoring member로 가입하여 회원 학회들이 연회비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DOI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PMC의 경우, PubMed 등재 학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XML 작성 능력 테스트에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해외에서도 국내의학학술지 원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우수논문이 보다 많이 인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 KoreaMed LinkOut 안내

KoreaMed에서는 논문 검색결과 화면에서 학회 website의 학술지 초록 또는 원문페이지로 연결하는 LinkOu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ubMed의 Journal LinkOut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KoreaMed에서 각 학술지의 초록이나 원문 페이지로 연결되어, 학술지로의 접근을 쉽게 하여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LinkOut이 가능한 학술지 초록페이지 URL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http://jkms.kams.or.kr/2002/abstract/577a.html>  
- 2002년 577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J Korean Med Sci)
- 2) [http://bbs.radiology.or.kr/search\\_abstract/read\\_abstract.asp?serial\\_no=k10470233](http://bbs.radiology.or.kr/search_abstract/read_abstract.asp?serial_no=k10470233)  
- 47권 0233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대한영상의학회지)

**LinkOut이 불가능한 URL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210.101.116.36/InSiteSearch/\(v0up5f451sd1mranbrfapr3i\)](http://210.101.116.36/InSiteSearch/(v0up5f451sd1mranbrfapr3i))

/ISS\_Detail.aspx?a\_key=2346313

- 2004년 25권 5호 392 page 논문

(위 주소는 연도, 권, 호, 페이지 등을 유추할 수 없는 임의의 시스템 부여 일련번호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번호 ID를 논문 고유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 KoreaMed나 PubMed와 같은 외부시스템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link되기 어렵습니다.)

PubMed와 Web of Science의 LinkOut 그리고 CrossRef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지의 URL을 KoreaMed LinkOut 방식과 같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KoreaMed LinkOut 참여가 해외 DB의 LinkOut과 Citation-linking System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7년 5월 현재 41종의 의편협 학술지가 KoreaMed의 LinkOu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LinkOut 관련 안내를 원하는 학회는 본 협의회의 KoreaMed 담당자(전화: 798-38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2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안내

본 협의회에서 KoreaMed 등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술지 평가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학술지는 편집인 평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회에서 5점 만점에 2.5 이상을 받은 학술지는 KoreaMed([www.koreamed.org](http://www.koreamed.org))에 등재하게 됩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 27일(수) 오후 4시,  
서울의대 본관 2층 제1 교수회의실

2) 평가대상 학술지 :

■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학술지 : 농촌의학·지역보건, 대한고혈압학회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대한수부외과학회지, 대한스포츠의학회지,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대한피부연구학회지, 보험의학회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임상검사와정도관리, 정신분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ung Cancer*(대한폐암학회) 이상 16종

■ 의대학술지 : 계명의대논문집, 고신대학교의학부학술지, 동국의학, 순천향의대논문집, 원광의과학, 조선대학교의대논문집, 중앙의대지, 충북의대학술지 이상 8종

■ 기타학회지 : 대학연주관절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대한치주과학회지, 산업간호학회지, 정신병리학, 종양간호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Experimental Neurobiology*(한국뇌신경과학회),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n Journal of Spine*(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이상 10종

3) 평가내용 : 자체평가, 실물평가, 협의회조사 항목

4) 평가위원 : 협의회 평가위원 9명 내외 + 학회별 자체평가위원 1명

5) 제출자료(평가신청서, 학술지, 자체평가항목) 및 기한:

① 신청서 1부

② 학술지 : 2003년 첫 호 1부와 가장 최근 발행호(투고 규정이 포함된 호) 5부

③ 자체평가항목

④ 기한 : 2007년 6월 1일(금)까지 신청서와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⑤ 제출처 : 대한의학회 내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140-721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 : 798-3807 • 팩스 : 794-3148

• e-mail : [hbear@kams.or.kr](mailto:hbear@kams.or.kr)